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

- 예레미야 44장 1-30절

오택현 <<<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 구약학

I. 들어가는 말

구약성경에서 자신의 소명부터 생의 마지막까지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예언서에 세밀히 기록한 문서 예언자 중의 한 사람이 예레미야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기라는 격변의 시대에 살면서 요시아왕 13년(주전 627년)에 예언활동을 시작하여 여호아하스(주전 609년), 여호야김(주전 609-598년), 여호야긴(주전 597년), 시드기야(주전 597-587년) 왕의 치세에 활동하며 앗시리아의 멸망과 바벨론의 발흥을 목도하였고, 이후 이어지는 유다의 멸망과정이라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충독 그달리아의 암살 등을 지켜본 뒤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의해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 그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후(렘 44장) 예언활동을 마감했던 예언자이다.

본문인 예레미야 44장은 7장에 나타나 있는 성전 설교와 더불어 가장 예레미야다운 설교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생애의 사역 중 그가 선포한 마지막 설교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선지자

의 비통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레미야 44장에는 바벨론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해 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유다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예레미야 4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의 시대적 정황과 말씀선포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I. 예레미야의 시대적 정황과 말씀선포의 배경

1. 시대적 정황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말씀선포를 시작한다. 당시는 요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로 요시아의 종교개혁 5년전의 상황이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주전 622년 이후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이때가 예레미야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전 609년 요시아가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 전사하여 종교개혁에 암운이 드리워지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곧 현실이 되어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석달 만에 바로 느고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그 뒤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정신을 버리고 다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므낫세 당시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반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호야김 시대에는 산당의 파괴와 강대국 우상숭배 배경으로 대변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정신이 완전히 퇴색되어 가족 구성

원들이 앗시리아의 신인 하늘의 여신 이쉬타르를 향하여 음식을 만드는데 참여하였고(렘 7:18),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이교도의 의식이 부활하였으며 성전에서는 요시아가 뿌리 뽑았던 이교도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다시 세워졌다(렘 7:30-31). 이보다 더더욱 큰 문제는 율법에서 금지된 종교적, 사회적인 가증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자행되었고,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그들의 모든 범죄는 묵인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였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의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잘못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그의 분노의 메시지는 성전설교로 알려진 예레미야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시드기야 시대에는 유다의 조정이 친 바벨론파와 친 이집트파로 나뉘어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친 이집트파가 득세하여 바벨론에 바친 조공을 중단하자 이에 격분한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초래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라 선언하였고 바벨론 세력에 대항한 일체의 항거 운동에 반대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나라의 반역자로 몰려 또다시 투옥되기도 하였고(렘 37장) 감옥에서 유다의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유다왕국이 멸망한 후 석방되었던 예레미야는 이스마엘에 의해 유다총독 그달리야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이집트로 망명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이집트에 끌려와서(43장) 마지막 설교인 44장의 말씀을 끝으로 그의 예언을 끝맺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44장의 마지막 설교는 수난으로 점철된 예언자의 삶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예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말씀선포의 배경

예레미야의 말씀선포의 배경 중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그가 아나돗 출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나돗은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 경쟁에서 패배한 제사장들이 유배되었던 장소이다. 다윗왕 말년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경쟁은 다윗의 많은 아들 중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경쟁으로 좁혀지게 되는데 이 둘 중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사람은 아도니아였다.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앞서고 그를 지지한 사람도 솔로몬을 지지한 사람보다는 훨씬 강력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군대장관 요압도 그의 편이었고 정통 제사장 가문인 아비아달이 역시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반면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만이 그의 곁에 있어 초반 대결구도는 아도니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지지하자 분위기는 급반전하여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오로지 제사장 아비아달만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지만 선왕과 함께 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죽음은 면하고 대신 추방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추방당했던 장소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다.

아나돗으로 쫓겨간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솔로몬이 건축하고 그들의 경쟁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실로와 같이 사사시절 자신의 조상들이 예배를 집례했던 장소에 더 큰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소외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예레미야의 예언은 당시 사회통념이나 잘못된 종교 관습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힘있는 메시지들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통념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

각이었다. 이 약속은 유다 통치이념의 근본이었던 다윗언약에 기초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무조건적인 성격의 다윗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다윗왕조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인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다윗언약의 유다는 사사시대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정치적, 종교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우상숭배 등 온갖 잘못을 자행하고 있던 유다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하나님의 책임은 더욱 엄격히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잘못을 자행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실 의무가 있다며 다윗언약을 왜곡하여 맹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백성들 사이에 성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의 원인인 유다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선 침묵하고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율배반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다. 많은 백성들은 교묘히 다윗언약을 인용하여 그들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현실에 정면으로 대항하며 선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많은 백성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이어지는 핍박을 통해 목숨마저 위태로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은 그가 이집트로 끌려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바벨론의 보복을 피해 이집트에 내려온 공동체들에게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사사건건 부닥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갈등은 44장에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III. 이집트 거주 유대인을 향한 심판의 선언(44:1-14)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와 있을 당시 유대인들은 하부 이집트 지역인 므돌, 다바네스, 놉과 상부 이집트 지역인 바드로스 지역에 광범위하게 모여 살고 있었다(1절). 그들은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서부터 하류지역까지 넓게 분포하여 살면서 이미 다신교적 성향의 이집트 종교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웨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 그는 이집트 거주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모국 유다와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깨달으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멸망 이유는 선지자가 누차 강조한 대로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한 일이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하나님은 불순종의 대가로 유다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다윗왕조의 몰락 등의 재앙을 주셨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2-6절). 진노를 촉발시켰던 원인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청종할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네 번에 걸쳐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아웨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과거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를 해하는 데 열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벗어나 아웨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7절). 둘째, 선지자는 거짓된 예배를 통해 아웨를 격동시키며 세상의 만민에게도 저주와 조롱거리가 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고 아웨에게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8절). 셋째, 선지자는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멸망

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깨닫고 더 이상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야웨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9절). 넷째, 선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뉘우치고 야웨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10절). 하지만 선지자는 이러한 간절한 호소를 그들이 외면할 경우 역시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울러 선언하고 있다.

이제 선지자는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하여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이집트까지 뻗치시어 회개치 않은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전쟁과 기근과 염병으로 멸하신 것 같이 이집트 땅에도 똑같은 벌을 내리시어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선언한다(11-13절). 다시 말해 그들이 살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였는지 모르지만 우상숭배라는 그들의 이전 삶의 행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예루살렘이 당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14절). 하지만 예레미야의 선포의 이유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야웨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IV. 이집트 거주 유다 공동체의 반응(44:15-19)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 이집트 거주 유다 공동체의 반응은 예상대로 매우 싸늘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부하며 예레미야에게 거칠게

향의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대상들은 이집트 지역중 바드로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¹⁾ 그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 회개 대신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괴변으로 선지자를 위협하며 그의 선포에 응수하고 있다(15절). 그들은 선지자가 야웨의 이름으로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선지자의 선포를 무한 불신하고 있다(16절). 그들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유는 이리하다. 즉, 자신들의 조상들이 므낫세 왕의 시절, 유다 땅에 있었을 때 앗시리아의 신인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술로 전제를 드렸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먹을 것이 풍부했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요시아 왕이 들어선 이후 종교개혁을 통해 모든 우상들을 폐하여 버리고 하늘의 여신을 향해 드리는 제사마저 없어진 이후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실을 기억하라며 예레미야에게 항변하고 있다(17-18절). 이집트 공동체들의 항변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므낫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원점으로 회귀하고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난무하고 있었던 시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그의 철저한 친앗시리아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정을 구가하던 시대였다 할 수 있다. 뒤이어 등장한 요시아왕의 시대는 철저한 그의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극찬을 받았지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민심의 분열과 강대국의 위협으로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다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어 나갔다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집트 공동체들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칼

1) 공동번역, 새번역에서는 1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집트 땅 바드로스”를 “이집트 남쪽에 사는”,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으로 번역하였지만 이는 적절치 않으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상 이집트 지역인 바드로스(오늘의 아스완)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 기근에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여신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 이전에 하던 대로 분향과 전제를 드릴 것이며 그들의 여인들도 남편들의 동의 아래 하늘의 여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분향과 전제를 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해 주신 아웨보다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는 하늘의 여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V. 최후의 심판의 선언(44:20-30)

이제 패역한 이집트 거주 유대공동체를 향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포가 이어지고 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선포했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며 단 1명이라도 회개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거기에 분향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다(20-24절). 그들의 땅이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하늘의 여신의 제거 때문이 아닌 그들이 원하고 있는 하늘의 여신 숭배와 같은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이집트 공동체들에게 남은 것은 더욱 준엄해진 아웨의 심판을 받는 일뿐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살기등등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이집트 공동체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더욱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는 하늘의 여신을 계속 섬기겠다는 여인들을 향하여 외친다. “너희는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전제를 드린다 했으니 너희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봐라!”(24-25절) 이는 반어적인 표현으

로 그들이 현재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즉,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계속 그 길을 가보라고 조롱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점점 더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아웨께서는 자신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이제부터는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한다(26절). 이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더러운 입술로 더 이상 아웨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행위를 아웨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이제부터 아웨는 이집트 공동체들을 늘 주시하고 계실 것인데 그 이유는 복을 내리려 함이 아니요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며 전쟁과 기근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그들 중 살아서 유다로 다시 돌아올 사람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유다 공동체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웨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도피하여 갔지만 돌아오는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고 아웨의 뜻에 의해 정한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올 것임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27-28절).

이제 아웨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이집트 공동체에게 경고하신다.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주리라 확신하고 있는 이집트의 바로 호브라 역시 유다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손에 잡혀가 죽임을 당했듯이 그 역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호브라는 바벨론에 끌려간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절대 세상의 왕을 의지하지 말고 아웨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30절의 말씀을 끝으로 예레미야는 그의 굴곡진 예언 선포를 마감하고 있다(29-30절).

VI. 나오는 글

이상에서 살펴본 예레미야 44장에 나타난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시작과 마지막이 일치하는 선지자의 치열한 삶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으로서 사회의 잘못된 성역이나 힘 있는 사람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마지막 설교에서도 변치 않는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찾아 볼 수 있다. 이집트 거주 유다 공동체는 예레미야의 선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그를 강제로 이집트에 망명시킨 장본인들이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던 하늘의 여신을 버리고 아웨에게로 돌아오라는 선포를 할 경우 목숨을 위협하는 큰 반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그들을 향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 말씀 이후 예레미야의 선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더 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분명한 것은 그가 백성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한결같은 삶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강자의 논리가 곧 하나님의 뜻인줄 알고 거기에 고개 숙이고 있는 일부 한국 교회를 향해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예레미야 44장에 나타나 있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는 끝까지 패역을 일삼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 있다. 이집트 거주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며 전제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을 결코 포

기하지 않으심을 보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을 임박한 무서운 심판의 도래를 통해 표현하고 계신다. 심판 선언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은 이런 면에서 이집트 거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돈과 권력을 섬기며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일부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이해한다면 무릎 꿇는 우리의 실천이 연이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44장은 평생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위대한 선지자의 아름다운 퇴장을 지켜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다.

:: 오택현 연세대학교(Th.B., Th.M.)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연세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현재 영남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있다.